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럼

발효나, 부패나

어릴 때 우리 집 방 한편에는 메주가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곰팡이가 슬어서 나는 그것이 썩은 줄 알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 곰팡이는 이로운 것'이라며 '메주가 아주 잘 뜨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대부분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고, 발효되어 영양과 맛이 더해지는 음식이 있다. 무슨 차이일까? 이는 둘 다 미생물에 의한 것이나 미생물이 분해되면서 사람에게 이롭게 변화되어가는 것이 발효요, 해롭게 변화되어가는 것이 부패다.

부패는 식자재를 방치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어떤 필요조건을 갖춰주면 그것은 발효되고, 숙성된다. 우리 어머니가 메주를 띄울 때면 엄청난 정성을 들이셨다. 온도계나 습도계가 없던 시절이었지만, 모든 걸 고려해서 메주를 걸어놓으셨고, 낱짜 체크도 잊지 않으셨다. 정성이 들어가니 메주가 잘 떨어져서 맛있는 된장과 간장으로 탄생했고, 그것들이 모든 음식을 맛깔나게 해주었다.

세상 사람들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어 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패되어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신앙에 정성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신앙을 방치하니 곰팡이가 슬고 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 3:15)고 경고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목숨을 다하라.', 신앙에 정성을 들이라는 말씀이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 3:3). 이것이 영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예전과 달리 술술 탐욕, 시기, 음란, 불의..., 이런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면 부패가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더 부패되기 전에 팔팔 끓여야 한다. 회개하며 기도로 끓여서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메주가 잘 띄워져야 모든 반찬에 맛이 나듯,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법. 부패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발효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지 지금 점검하라. 더 늦기 전에!

경험 있는 자만이 자신감이 있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내 몸으로 체득한 지식이야말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이끄는 자나 기업이나 단체의 리더는 반드시 국가 및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륜을 갖춰야함은 물론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노하우는 그만큼 중요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

목사님은 목회 38년 가운데 목회성장과 집회 성공의 노하우를 뿔속까지 체득하신 분

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목회 7년 만에 메인스 타디움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6개월을 전도단 본부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입니다. 나는 분명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신 있게 세계 어디를 가나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갔을 때 멕시코 정부로부터 집회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면 집회를 강행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집회가 계획되어있는데 위

서 역시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갔을 때는 쏟아진 비로 집회 운동장에 물웅덩이가 생겨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나는 기도하고 나가서 직접 물을 퍼내며 집회 준비를 독려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나이지리아에 성령의 불을 던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국기를 건져달라고 찾아온 루이스 목사 일행이 다녀간 후 베네수엘라 목회자 세미나가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렸습니다. 목회자 1만여 명이 운집한 세미나 역시 성령의 핵폭발이 일어났고, 그



멕시코 집회 허가를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

이다. 그러기에 어디를 가나 강력한 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당신이 걸어온 길을 간증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신앙을 강조하셨다.

"나는 귀신을 쫓아도 큰소리로 외쳐 꾸짖으며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도 '외쳐 가라사대' 하셨습니다. '귀신아, 나갈래? 나가줄래?' 이래가지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전 방송실에서 요동하는 귀신을 쫓았고, 전화로 세계 각지에서 기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귀신을 쫓았습니다. 전화로도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그놈들은 내 목소리를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

기가 찾아온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이소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가 한 것은 오직 기도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갑자기 알지 못하던 국회부의장이 나타나 돕겠다고 하더니 주지사 친구의 경비행기를 내주어서 4시간 동안 경비행기를 타고 주도(州都)로 날아가 집회 허가를 받고 돌아와 그날 당일에 집회를 할 수 있었고, 대역사를 일으킨 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쏟아지는 비를 마다 않고 그 온 비를 다 맞으며 혼신을 다해 통역관 임윤석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아프리카 가나에

곳에서 믿음의 사람 에드가르 중앙은행총재 및 경제부 장관을 만나 이후 베네수엘라 집회에 우리를 돕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이스 목사는 백만 집회를 요청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지경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늘을 침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 왕권을 누리는 삶을 살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 및 수요일예배 대면예배 안내

접종완료자만으로 70% - 1체육관, 1차 및 비접종자는 30% - 2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4:20)

설마가 사람 잡는다, 내가 힘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내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친미(親美) 노선을 택한 나라인 지라 전쟁이 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나니 어떻습니까?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소극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만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일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누구나, 어느 나라나 우선 나부터 살고, 내 이익부터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 없는 자유와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教師),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성장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안보입니다. 안보 없는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입니다. 모래로 지은 집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지어도 바닷물이 한 번 들어오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주국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방이요?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그들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시146:3)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왜 그렇게 막무가내인 줄 압니까? 핵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핵이 있으니 미국을 상대로 큰소리치는 겁니다. 저들이 핵을 포기할까요? 그것이 유일한 힘 인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에 상응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능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잠언에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21:31)고 말씀합니다.

내가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쳐야 남의 잔도 채울 수 있습니다. 기생의 소생인 입다가 처음에는 본처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만 잡배들을 모아 힘이 강해지니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으로 인해 애굽땅이 풍족해지자 주위의 모든 국가들이 머리를 숙이고 먹을 것을 구하러 왔고,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고 더 많은

부비를 약속한 것도 그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에서 씩뜩니다. 공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니까요. 내가 있으니 남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심을 씩니까? 당장 내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집 쌀독을 걱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단별신사인데 어떻게 남을 입힐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

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 균하게 하려

합 이 라”(고후 8:14). 사과 씨를 심으면 이것은 자라기 위해 주변의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 다 끌어당깁니다. 나부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지요. 그러나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 나무가 되고 거기에 사과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찌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내 배만 채우고 독식하는 이기주의가 문제이지, 이타주의로 가는 과정이라면 이기주의란 책망 받을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하셨습니다. ‘너와 네 집’부터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남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자와 힘 있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힘센 자가 이깁니다. 힘센 놈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안보가 없으면 결코 경제성장도, 우리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교회도 설마에 잡힐 수 있습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외치던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이 순간 주저앉았고, ‘설마 나라가 부도가 나겠어?’ 했지만 1997년에 우리나라가 부도났었고, 출근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 뉴욕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리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말인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에 대해 ‘항복하라’고 사전경고를 합니다. 그때 일본의 반응은 ‘설마 세계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원자폭탄을 투하하겠느냐’며 맞대응

하 기 로 했 습 니 다. 그러나 얼마 후 미국은 히로시마

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일로 일본 국민 약 11만 명이 사망했으며, 반경 3km가 넘는 지역 안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 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을 취하여 그 피를 집 문 좌우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표적이 되어 재앙이 넘어가리라(출12:3~11)”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그대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설마 그렇게 안한다고 무슨 일 나겠어?’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애굽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모든 처음 난 것, 곧 장자는 물론이고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설마는 분명히 사람을 잡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만이 살 길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우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이의 십만양병설이 받아들여 졌다면 임진왜란에서 그렇게 쉽게 당하

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318명의 전투원을 집에서 기르고 연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 쫓아가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여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창 14:14~20). 다윗도 정예화 된 군사를 길렀습니다. 그럼요,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유엔이 우리를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0분이면 서울은 초토화 된답니다. 맞은 다음에 유엔에 제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철저한 준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영적인 것도 대충 준비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꼴 나는 겁니다. 뭐든지 철저히, 넘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지 않으니 모자라서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외적보다 내적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네 당, 내 당 찾을 때입니까? 이 나라가 정치인의 나라입니까? 서로 연합하여 뽄뽄 뭉쳐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려야 할 이때에 서로 물고 뜯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요. 성경의 경고의 음성을 그들이 좀 듣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미12:25).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여 무릎 꿇고 공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있고, 동역자들도 300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요청해왔습니다. 기도로 그들을 도읍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정신 나간 자들입니다. 전쟁은 모든 희망의 끝입니다. 보트피플에 대해 마스크를 통해 보셨지요? 전쟁을 피해 조국을 떠났지만, 받아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좁은 배에서 굶주리며, 거기서 죽어가고... 비참함의 극치입니다. 국가가 없는 민족은 국가가 있는 개보다 못한 법입니다. 하늘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듯 국가는 국력이 능력입니다. 모두 정신을 차려 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꾀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첫째 부활을 준비하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되신 분이시다. 그는 만유의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 결과를 보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힘써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부인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는 물리적인 조건을 부인하지 않고 등에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스런 하늘의 보좌에 오르기까지는 세상에서 힘써 헌신하며 준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을 두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고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서 꼭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있다. 과학의 큰 힘에 현혹되어 속는 자들이 날마다 늘 어가고 있다. 만일 우리도 믿음을 잠시 소홀히 한다면 세상의 지혜에 경배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지혜와 실력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 바로의 군대가 강한 무기와 발 빠른 전차 부대로 광야로 나간 모세를 추적했지만 따라잡지 못한 것처럼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추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 현혹되

어 우리의 가진 믿음을 세상의 지식에 추월당하지 말고 예수로 시작했으니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끝을 맺어야만 한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물질을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시작했으니 나와 함께 끝을 맺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셨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21:18)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늘 예수로 시작할 것과 예수로 끝맺을 것을 바라고 계신다. 스테반의 마지막 죽는 그 영광의 장면이 너무 아름답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마친 흠 없고 영광스런 죽음이 었다.

마귀는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망하게 하려고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환난 날에 죽도록 충성할 것(계2:10)과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든지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계3:11)을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3:3).

신기류 목사

:: 신앙논객 ::

법 위에 잠자지 말자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축제 기간 중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있었다. 바로 러시아의 한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금지약물 도핑파문이다.

그 어떤 선수들도 성공할 수 없었던 초고난도 점프기술을 선보이며 ‘러시아가 낳은 피겨 천재’로 여겨졌던 15살 소녀 선수의 몸에서 금지 약물의 일종인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이 기준치의 200배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은 그녀를 향한 박수갈채와 탄성을 침묵과 날선 비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유력한 금메달리스트 후보였던 이 선수는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그림에도 올림픽 출전을 감행시킨 조국의 기대와 자신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본 무대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메달 순위권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딤후2:5). 이것은 비단 올림픽과 같은 운동경기에서만 이야기의 아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전에는 정계와 재계, 학계 및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암암리에 행해졌던 불법과 악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수사 및 소송, 처벌 대상이 되는 장면이 부지기수로 나온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전에는 국민들이 각자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안목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임기 중에도 국민에 의해 평가와 심판을 받는 시대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올림픽에서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메달 대신 비난을 얻고, 법을 무시하고 얻은 세상의 부와 권력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 우리 삶과 신앙 여정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경주 아니겠는가!

목사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왜 그토록 피 땀 흘린 일성(一聲)으로 “죄짓지 말라!”,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고 강조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끝까지 완주하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려는 예수중심의 사람들이 되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딤후2:5).

신혁주 전도사

지금 자네 생각은 어떤가!

먹구름 싫어하고 어찌 단비를 바라며
비바람 싫어하고 어찌 부리를 내리랴
따가운 햇살은 단 열매 안겨주지
아~ 그리운 지난 세월
추억이 날 웃음 짓게 하누나!
먹구름 비바람 파도를 두려워하며 떨던 내가
세상사 깨닫고 오대양 육대주
미친 듯 뛰고 달리고 항해하며 비행하니
유능한 선장 일출에 신비로움 만끽하며 소리 지름 알았지
아~~
나의 사랑의 손발 선원들과 함께
낙조 매력에 취한 생선회 감칠맛 알았네
뽕박과 순교의 핏방울 등 메고 언덕에 오르니
영롱한 눈망을 천사 무지개 꽃 안기며
사랑의 멜로디로 반기누나!
아~ 그리운 찬란히 빛나는 예수 영광의 면류관
이 밤도 그려보누나

여보게!
세상사 목적 없는 훈련 없다네
감사의 깨달음 알면 행복의 찬미 내 주위에 맴돌며
천사와 함께 춤추는 지상낙원 내 맘에 있음을 알리라!

朋友

:: 낮은 울타리 ::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최근 회사 전체 재택근무로 인해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근무를 시작하려 책상에 앉았는데, 그 순간 위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피아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곡이 어떤 곡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부터 비슷한 시간대에 간간이 들리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가 1년 전입니다. 제가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찡긍했습니다. 바로 위층의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신경질이 내려는 순간, 같은 부분을 계속 틀려가며 반복하는 그 소리에 마음이 쓰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피아노 소리는 꽤나 자주 들려왔습니다. 연주가 아닌 소음처럼!

제가 오랜만에 듣게 된 이웃의 피아노 소리는 꽤나 아름다웠습니다.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작년의 그 소음이 올해의 아름다운 연주가 된 것에 저는 아무도 몰래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저의 이웃은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그 곡을 아름답게 완성시켰습니다. 같은 구간을 맴돌던 그 시끄럽던 소리가

기억나 이 사람의 노력과 연주가 더욱 값지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최근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부패하는 음식과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에선 지나가는 시간 동안 현실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시간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결국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되고 맙니다. 하지만 후자는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마 아름답게 피아노 연주를 완성시킨 제 이웃은 후자일 것입니다. 1년 동안 그 사람은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전, 다짐했던 것을 하나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해 딱 1년 후 저의 위층 이웃처럼 성과를 나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혹시 벌써 잊고 계셨던 새해 목표가 있습니까? 2022년도 어느덧 2달이 지나갑니다. 이 글을 읽고 나의 잊었던 계획과 다짐들을 바로 실행해 옮기면 분명 내년 2월에는 1년 전과 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장수정

눈물의 부탁

서울 근교에 건설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나이가 드셨는데 직원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한 경리 여직원이 금고에 있던 돈 200만 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여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수사 끝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몇 달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상시엔 말도 없이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이 있는 날, 사장님은 피해자 신분으로 증언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말을 하시라는 권유에 사장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용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이 젊은이를 구속시킨다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요? 돈을 잘 간수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와 저 직원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장님을 바라본 판사는 잠깐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나가 계

십시오.”

얼마 후, 법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장의 눈에 멀리서 뛰어오고 있는 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판사는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장님도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점을 정상 참작으로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직원을 풀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툭툭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니다. 젊을 땐 누구나 실수도 하는 게 아니겠니? 괜찮다. 우리 이제 그만 회사로 가자!”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전 직원이 입구에서서 사장님과 직원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이 퇴근을 하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없이 저 혼자 키우다 보니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 같네요. 저런 직원을 용서해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계속 울고 있는 직원 어머니를 위로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후 사장님의 눈에 탁자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의 어머니가 놓고 간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일을 감당하셨을까? 사장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장님은 그 길로 전 직원을 마트로 데리고 가서 과자를 잔뜩 산 뒤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고아원 원생들은 전부터 사장님을 알고 있었는지 사장님을 보더니 모두 뛰어와 사장님 품에 안겼습니다. 과자를 골고루 다 나눠준 후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엔 이곳에서 자랐고, 나도 한때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고아원 돈을 몰래 훔치다 걸려서 경찰서로 끌려갔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나를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눈물의 부탁을 해주신 덕분에 곧장 풀려났고 그 덕분에 새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던 직원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그의 어머니가 가져온 봉투를 건네주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 이것은 어머니의 눈물이니 절대 잊지 말고 평생 효도를 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

직원들과 원생들의 등 뒤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햇빛이 노을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값진 것은 사랑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다. 또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요,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3:13~14).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작은 개선이 명작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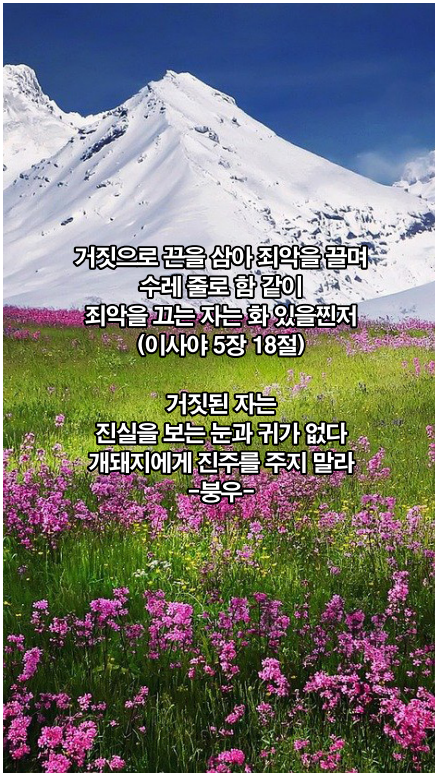
서울역 KTX 개찰구에 가보면 과거와는 달리 기차표를 따로 검사하는 사람이 없다. 여행객들은 표 검사 받느라, 또 기다리느라 짐을 내렸다 다시 들 필요없이 편하게 열차에 탑승하고, 승무원이 예약되지 않은 자리에 앉은 사람만 따로 조용히 검사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무임승차가 발각되면 큰 벌금을 내는 구조이다 보니 무임승차하는 일도 거의 없다. 결국 승객도 자유롭고 편해서 좋고 회사도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멋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내 주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얼마 전, 동네에서 운동하러 가는 길에 작은 공사 하나가 진행되었다.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와 짧은 산책로 하나를 개설했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멀리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곳에 지름길 하나를 만든 것이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불편한 것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지나갈 때마다 칭찬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불편한 것을 개선하면 차츰 명작이 된다. 내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들을 차츰 개선해 나가보자. 시간을 낭비하는 잘못된 습관들,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드는 불편한 행실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번잡한 요인들을 찾아 없애고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어 보자.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없다. 작은 돌 부리에 넘어진다.” 작은 돌을 치우는 것은 쉽다. 너무 쉬워서 다들 무시하다 넘어지는 것이다.

불편한 작은 것, 불합리한 작은 것, 불필요한 작은 것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발전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진 걸작(傑作)이 되어 있으리라 확신한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생활 속의 잠언 ::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맙시다

지난 학기 창업 관련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같은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각자의 창업에 관한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각 기관 단체에서 진행하는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선된 아이템은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상금도 받을 수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십여 년 전 딸아이 출산 시절, 흥은동에서 광장시장까지 걸어가서 아기의 이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사다가 출산할 딸을 위한 이불을 손수 만들었던 기억이 있었고, 딸아이는 평생을 그 시절 엄마가 직접 만들어 준 이불에 고마움을 표했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추억거리로 간직했습니다.

그 딸아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고 싶었고, 창업 아이템은 손수 아기의 이불을 제작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제 아기 이불 제작에 관한 창업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조사와 수요조사를 마치고 내린 결론은 이불 제작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창업 프로젝트를 전문가인 동료에게 넘겼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모 기관단체의 경진대회에서 일등을 했습니다. 상위권에 입상한 동료는 어느 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려 했고, 상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배신당한 느낌도 들었지만 깨달은 교훈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살아온 지난 세월들

이 떠올랐습니다. 축복의 순간에 그 축복을 내가 만든 것처럼 의기양양했고, 위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뒷전이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나서야 알게 된 소중한 교훈은 창업경진대회 1등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린다고 수없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가로챘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억났습니다.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알게 하시며, 직접 교훈으로 찾아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